

한국하이쿠는 우리의 문학입니다

한국하이쿠 창작 방법

통합 매뉴얼

완전 초보자를 위한 관찰 · 계절말 · 장면 만들기 안내서

문화평론가 김수성 · 문학평론가 안수현

01 5 · 7 · 5 세 줄의 정형	02 계절말 시간을 부르는 단어	03 관찰 감정을 장면으로
04 여백 독자의 감각을 남김	05 비유 세계가 바뀌는 한 번의 전환	06 퇴고 설명을 덜고 장면을 살림

한국하이쿠연맹 Korea Haiku Federation

www.koreahaiku.org · khf@koreahaiku.org

발간 취지

이 매뉴얼은 한국하이쿠를 처음 접하는 독자가 5·7·5 형식, 계절말, 관찰, 장면 중심의 표현, 여백과 퇴고의 원리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정리한 창작 안내서입니다. 기존 한국하이쿠연맹의 초보자용 「한국하이쿠창작방법」 자료에서 제시한 “한국하이쿠란 무엇인가”, “5·7·5”, “계절말”, “찰나적인 순간 포착”의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관찰론·객관적 상관물·비유적 전환·감각의 전화·지연된 만족의 관점을 통합했습니다.

한국하이쿠는 짧은 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짧게 쓰는 문학은 아닙니다. 긴 설명을 덜어내고, 하나의 계절 장면 속에 사물과 감각과 여운을 압축하는 문학입니다. 이 매뉴얼의 목표는 초보자가 “무엇을 써야 할지”보다 먼저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익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 매뉴얼의 핵심 문장

한국하이쿠는 감정을 직접 설명하는 문학이 아니라, 감정이 생겨날 수 있는 장면을 독자 앞에 놓아두는 문학입니다.

목차

제 1 부 한국하이쿠의 기본

- 1 장 한국하이쿠란 무엇인가
- 2 장 5·7·5, 세 줄의 그릇
- 3 장 계절말, 시간을 부르는 단어
- 4 장 찰나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제 2 부 관찰이 작품을 살리는 방식

- 5 장 꽃술 하나에도 계절은 숨어 있다
- 6 장 객관적 관찰과 감정의 장면화
- 7 장 5W1H 로 초고 잡기
- 8 장 오감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바꾸기

제 3 부 장면과 여백 만들기

- 9 장 두 개의 시선이 작품을 흐릴 때
- 10 장 감정어를 줄이고 장면을 남기기
- 11 장 명사적 종결과 여운
- 12 장 지연된 만족, 기다림 속에서 완성되는 언어

제 4 부 비유와 감각의 전화

- 13 장 비유적 전환의 원리
- 14 장 감각의 전화와 공감각
- 15 장 디지털 시대의 느린 감각

제 5 부 실전 창작과 퇴고

- 16 장 초보자를 위한 7 단계 창작법
- 17 장 Before/After 수정 연습
- 18 장 퇴고 체크리스트
- 19 장 연습 문제와 워크시트
- 20 장 계절말 미니 목록

부록

- 출처와 참고문헌
- 강좌·배포용 안내

제 1 부. 한국하이쿠의 기본

1 장. 한국하이쿠란 무엇인가

한국하이쿠는 일본 하이쿠의 짧은 정형 형식을 바탕으로 하되, 한국어와 한국의 자연, 생활문화, 감각을 담아내는 문 학입니다. 일본 하이쿠가 자연과 계절, 순간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 한국하이쿠는 그 형식이라는 그릇 안에 우리의 산천, 세시풍속, 음식문화, 마을 풍경, 가족의 기억, 한국어의 리듬을 담아냅니다.

하이쿠는 일반적으로 5·7·5의 세 줄, 모두 17음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 일본 문학 속에서 짧고 응축된 형식으로 성장했고, 마쓰오 바쇼의 활동을 통해 예술적 표현 형식으로 정립되었습니다. 한국하이쿠는 이 짧은 형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한국어의 음감과 한국적 계절 체험을 중심에 놓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정의

한국하이쿠는 “지금 이 계절에 내가 실제로 본 작은 장면”을 5·7·5의 세 줄에 담아내는 한국어 정형시입니다.

2 장. 5·7·5, 세 줄의 그릇

한국하이쿠의 기본 형식은 시작구 5자, 가운데구 7자, 마무리구 5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운 창작 기법보다 먼저 이 세 줄의 그릇에 하나의 장면을 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기본 구조 예시

초여름 마당
감나무 잎새 사이
흰 나비 하나

5·7·5의 세 줄 안에 계절, 장소, 배경, 중심 사물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첫째 행은 장면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둘째 행은 사물이나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자리입니다. 셋째 행은 설명을 마무리하는 결론이 아니라 여운이 남는 자리입니다. 이 구조를 익히면 짧은 형식 안에서도 장면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글자 수 계산의 기본

일반적으로 띄어쓰기는 세지 않고 한글 한 글자를 하나의 단위로 봅니다. 다만 외래어, 숫자, 부호가 들어갈 때는 강좌나 투고처의 기준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장. 계절말, 시간을 부르는 단어

한국하이쿠에서 계절말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계절말은 작품 속 장면을 시간의 좌표 위에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봄”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아도 벚꽃, 냉이꽃, 개구리, 진달래는 봄을 불러옵니다. “여름”이라고 쓰지 않아도 매미, 장마, 참외, 접시꽃, 반딧불이는 여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계절말은 자연물만이 아닙니다. 절기, 세시풍속, 생활문화, 음식, 날씨, 농사, 몸의 감각도 계절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절말은 개인의 감정을 공동의 시간으로 옮겨줍니다. 한 사람의 그리움도 첫눈이나 입김과 만나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겨울의 장면이 됩니다.

계절	계절말 예시	느껴지는 시간과 감각
봄	냉이꽃, 개나리, 진달래, 벚꽃, 봄비, 앵초꽃	새로움, 싹틈, 기다리던 온기, 첫 움직임
여름	매미, 장마, 참외, 접시꽃, 반딧불이, 복날, 양산	더위, 습기, 밝은 빛, 장터, 물가, 긴 낮
가을	단풍, 감나무, 국화, 귀뚜라미, 추석, 역새	수확, 서늘함, 익어감, 돌아봄, 밝은 달
겨울	첫눈, 입김, 군고구마, 김장, 메주, 동지, 서리	고요, 기다림, 차가움, 저장, 가족의 온기

4 장. 찰나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한국하이쿠는 긴 사건을 모두 설명하기보다 한순간을 붙잡습니다. 사진가가 셔터를 누르듯이, 한 장면의 빛과 움직임과 감각을 세 줄 안에 정지시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단순히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순간 속에는 계절의 흐름, 사물의 상태, 독자의 기억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이쿠의 순간은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가깝습니다.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낀 경험이 작품의 중심이 될 때 문장은 가장 맑아집니다. 기억이나 상상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바탕에는 실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순간 포착 예시

장독대 위에
날개를 접고 앉은
고추잠자리

장면을 설명하지 않고, 잠시 멈춘 사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제 2 부. 관찰이 작품을 살리는 방식

5 장. 꽃술 하나에도 계절은 숨어 있다

한국하이쿠 창작의 출발점은 화려한 표현이나 어려운 수사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사물을 보지만, 실제로는 자세히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가에 핀 꽃을 보더라도 “꽃이 피었구나” 정도에서 시선이 멈춥니다. 그러나 하이쿠를 쓰는 사람은 그 꽃 앞에서 한 걸음 더 멈춥니다.

꽃잎의 색은 어떤지, 꽃술은 어떤 모양인지,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곁에 어떤 곤충이 머무는지까지 천천히 살펴봅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하나의 꽃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꽃술 끝의 꽃가루, 미세하게 갈라진 꽃잎의 결,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이슬방울까지 새로운 발견이 됩니다.

관찰의 핵심

좋은 한국하이쿠는 특별한 상상력보다 평범한 사물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꽃 한 송이가 아니라 꽃술 하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창작의 첫걸음입니다.

6 장. 객관적 관찰과 감정의 장면화

초보 창작자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관찰보다 해석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꽃을 보자마자 “아름답다”, 비를 보자마자 “쓸쓸하다”, 낙엽을 보자마자 “외롭다”고 적어버리면, 작품은 곧바로 설명문이 되기 쉽습니다.

객관적 관찰은 감정을 지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을 장면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작가가 “외롭다”고 말하는 대신, 외로움이 느껴질 만한 사물과 시간과 움직임을 제시하면 독자는 스스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정의 장면화 예시

비 그친 골목
빈 우산꽃이 옆에
젖은 발자국

“쓸쓸하다”는 말이 없어도 독자는 부재와 기다림의 감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T. S. 엘리엇이 말한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을 직접 진술하지 않고, 사물·상황·사건의 배열을 통해 특정한 정서를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한국하이쿠의 객관적 관찰도 이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물의 배열이 선명하면 감정은 작가가 설명하지 않아도 독자의 감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7 장. 5W1H 로 초고 잡기

처음 한국하이쿠를 쓸 때는 5W1H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하이쿠에서는 “왜”를 조금 뒤로 미루는 편이 좋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를 먼저 설명하려고 하면 작품은 쉽게 해설이 됩니다.

- 무엇이 있는가? - 중심 사물 찾기
- 어디에 있는가? - 장소와 거리감 찾기
- 언제의 일인가? - 계절말과 시간 찾기
- 어떻게 움직이는가? - 상태와 동작 찾기
- 왜 그런가? - 독자가 느끼도록 남겨두기

What, Where, When, How 가 충분히 마련되면 Why 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하이쿠의 여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5W1H 활용 예시

비 오는 오후
창가의 창잔 하나
온기만 남아

사람이 떠난 뒤에도 남아 있는 기억과 여운, 창잔의 상태와 시간을 보여줍니다.

8 장. 오감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바꾸기

관찰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의 냄새를 맡고, 바람의 방향을 느끼고, 새소리의 높낮이를 듣고, 손끝에 닿는 온도를 감각하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오감은 막연한 감각어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갑다”, “향기롭다”, “고요하다”와 같은 표현은 그 자체로는 아직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관찰은 감각을 검증 가능한 장면으로 바꿉니다. 물소리라고만 쓰기보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인지, 양은대야를 치는 물방울인지, 냇돌 사이로 미끄러지는 물살인지가 드러날 때 문장은 체험에 가까워집니다.

오감 구체화 예시

양은대야 위
처마 끝 빗방울은
동그란 소리

소리를 단순히 설명하지 않고, 어디에서 어떻게 생기는 소리인지 보여줍니다.

제 3 부. 장면과 여백 만들기

9 장. 두 개의 시선이 작품을 흐릴 때

한국하이쿠는 짧은 형식 안에서 하나의 장면을 선명하게 세우는 문학입니다. 한 작품 안에 여러 사물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사물들이 모두 중심처럼 놓이면 독자의 시선은 분산됩니다.

문제는 사물이 여럿 등장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대상이 동시에 주인공이 될 때 발생합니다. 독자는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장면의 중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두 대상이 함께 등장할 때는 중심과 배경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수정 전	수정 후
초여름 마당 감나무와 흰나비 웃음 나누네	초여름 마당 감나무 잎새 사이 흰 나비 하나

수정 포인트

수정 전 작품은 감나무와 흰나비가 동시에 중심이 되고, “웃음 나누네”가 작가의 해석으로 작동합니다. 수정 후 작품은 감나무를 배경의 공간으로 두고, 흰 나비 하나를 중심 장면으로 세웁니다.

10 장. 감정어를 줄이고 장면을 남기기

한국하이쿠에서 감정어는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외롭다”, “슬프다”, “기쁘다”, “아름답다”, “그립다” 같은 말은 감정의 이름입니다. 감정의 이름을 너무 빨리 말하면 독자가 스스로 느낄 여백이 줄어듭니다.

수정 전	수정 후
가을 저녁에 외로운 마음으로 낙엽을 본다	가을 저녁길 빈 벤치 아래 자리 마른 잎 하나

수정 포인트

감정어 “외로운”을 지우고, 빈 벤치와 마른 잎 하나를 남겼습니다. 독자는 장면을 통해 정서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감정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직접 설명하지 말고, 감정이 머물 수 있는 사물과 상황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설명을 줄일수록 독자의 감각은 더 넓게 움직입니다.

11 장. 명사적 종결과 여운

한국하이쿠는 마지막 행에서 서술어로 의미를 닫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명사 하나로 멈출 때 더 큰 여운이 생깁니다. 서술어는 문장의 방향을 결정하고 의미를 닫는 힘을 가집니다. 반면 명사적 종결은 장면을 정지시키면서 의미를 열어둡니다.

명사적 종결 예시

뒷 뜰 장독대
날개를 접고 앉은
고추잠자리

마지막 행의 명사는 결론이 아니라 독자가 바라볼 수 있는 사물입니다.

일본 하이쿠의 기레지, 곧 절자가 문법적 장치와 운율적 단절을 통해 여백을 만든다면, 한국하이쿠의 명사적 종결은 한국어 문장 구조 안에서 장면을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법은 다르지만, 독자를 그 틈에 세운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효과를 낳습니다.

주의할 점

명사로 끝낸다고 모두 여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관찰이 얇은 상태에서 명사로 끊으면 절제가 아니라 멧대기가 됩니다. 명사적 종결은 충분히 관찰한 뒤 더 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12 장. 지연된 만족 - 기다림 속에서 완성되는 언어

문학평론가 안수현

한국하이쿠는 짧게 읽힙니다. 그러나 짧게 읽힌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의미가 끝나는 문학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하이쿠는 읽은 뒤에 천천히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문학입니다.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읽은 뒤에 장면이 남고, 그 장면이 독자의 기억과 만나면서 조금씩 깊어집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연된 만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만족은 무언가를 즉시 얻으려 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며 더 깊은 총족에 도달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한국하이쿠는 독자에게 즉각적인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의 장면을 조용히 보여주고, 그 뒤를 비워둡니다.

그 비어 있음 속에서 독자의 감각은 서서히 작동합니다. “슬프다”, “기쁘다”, “외롭다”, “그립다”처럼 감정을 바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는 장면 앞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호출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이해 대신, 시간 속에서 스며드는 이해가 작품을 완성합니다.

계절말은 지연된 만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매화”라는 말은 단지 꽃의 이름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불러옵니다. “첫눈”은 겨울의 시작만을 뜻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던 기억과 발자국이 남는 길의 감각까지 함께 불러옵니다.

한국하이쿠를 쓰는 일도 기다리는 일입니다. 어떤 장면을 보았을 때 바로 감정을 적기보다 잠시 기다려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꽃도 조금 더 바라보면 꽃잎의 결, 꽃술의 흔들림, 그 결을 지나가는 개미, 잎 끝의 작은 이슬이 보입니다. 첫 번째 시선에서는 감정이 보이고, 두 번째 시선에서는 사물이 보입니다.

지연된 만족의 창작 원리

좋은 작품은 감정을 빨리 말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장면이 마음속에서 충분히 익을 때 나옵니다. 지금 바로 도착하지 않고 조금 뒤에 도착하는 감각, 읽은 뒤에도 계속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장면이 한국하이쿠의 힘입니다.

현대 사회는 기다림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정보가 나오고, 사진을 올리면 바로 반응을 얻고, 짧은 영상은 몇 초 만에 지나갑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한국하이쿠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몇 초면 읽을 수 있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결국 한국하이쿠는 시간을 다루는 문학입니다. 짧은 언어 속에 긴 시간을 숨겨두고, 독자가 그것을 천천히 펼치도록 합니다. 하이쿠의 여백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지연된 의미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독자는 자신의 감각을 다시 발견합니다.

기억 속에서 늦게 도착하는 장면

첫눈 내린 길
발자국 하나 건너
닫힌 대문 앞

설명하지 않은 기다림이 독자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완성됩니다.

제 4 부. 비유와 감각의 전환

13 장. 비유적 전환의 원리

문학에서 비유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비유는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향을 바꾸는 장치입니다.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부르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옮겨 부르는 순간, 의미는 단순히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놓여 있던 감각의 질서 자체가 새롭게 배열됩니다.

한국하이쿠에서 비유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짧은 작품 안에서 비유가 너무 많으면 장면보다 언어가 앞서게 됩니다. 비유는 장면을 대신하는 장식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관찰된 사물의 결을 더 깊게 보여주는 장치여야 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비유 원칙

비유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실제 장면을 정확히 보고, 그다음 꼭 필요한 자리에서만 감각의 방향을 살짝 바꾸어 보십시오.

14 장. 감각의 전화와 공감각

감각의 전화는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며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공감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시각이 청각을 불러오거나, 소리가 색채로 느껴지거나, 냄새가 거리감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푸른 종소리”라는 표현은 청각인 종소리를 시각의 색채로 옮깁니다. 독자는 단순히 종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의 맑음과 거리, 고요한 온도까지 함께 느끼게 됩니다. 핵심은 표현의 화려함이 아니라 전환의 각도입니다.

감각 전환 예시

새벽 절마당
푸른 종소리 번져
서리 낀 계단

소리를 색채와 촉감으로 옮기며 겨울 새벽의 감각을 확장합니다.

15 장. 디지털 시대의 느린 감각

오늘의 문학 환경은 빠르고 조각나 있으며 동시적입니다. 플랫폼의 리듬 속에서 텍스트는 실시간으로 유통되고, 감정은 댓글과 공유를 통해 순식간에 증폭됩니다. 이런 시대에 짧은 형식의 문학을 곧 얕은 문학으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오히려 짧은 형식은 언어를 줄임으로써 감각의 밀도를 높이고, 설명을 덜어냄으로써 독자가 스스로 세계를 다시 느끼게 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하이쿠는 빠르게 전달되지만 즉각적으로 소비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서 독자의 감각을 늦추고, 마음속에서 다시 열리게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한국하이쿠

한국하이쿠는 빠른 시대 속에서 느린 감각을 회복하게 하는 언어입니다. 말이 끝나는 자리에서 감각이 시작되고, 설명이 멈추는 자리에서 독자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제 5 부. 실전 창작과 퇴고

16 장. 초보자를 위한 7 단계 창작법

1. 계절을 정합니다. 지금 계절이 무엇인지, 또는 작품 속 시간이 어느 계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계절말을 고릅니다. 자연물, 생활문화, 절기, 음식, 날씨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실제 장면을 관찰합니다. 색, 모양, 위치, 움직임, 소리, 냄새, 촉감을 적어봅니다.

4. 중심 사물을 하나 정합니다. 작품의 주인공이 될 사물을 분명히 세웁니다.
5. 감정어를 지웁니다. 아름답다, 외롭다, 슬프다 같은 감정어를 장면으로 바꾸어 봅니다.
6. 5·7·5 로 배열합니다.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 줄의 리듬에 맞추어 다듬습니다.
7. 마지막 행을 점검합니다. 설명으로 닫았는지, 장면이나 명사로 여운을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가장 쉬운 창작 공식

계절말 1 개 + 중심 사물 1 개 + 주변 단서 1 개 + 작은 움직임 1 개 = 초보자가 시작하기 좋은 한국하이쿠의 기본 뼈대입니다.

17 장. Before/After 수정 연습

수정 전	수정 후
접시꽃 피어 여름날 아름다워 마음도 환해	금 간 담장 곁 접시꽃 한 줄 올라 한낮의 그림자

수정 포인트

수정 전은 아름답다는 감정을 직접 말합니다. 수정 후는 금 간 담장과 접시꽃의 대비, 한낮의 그림자를 통해 여름 장면을 보여줍니다.

수정 전	수정 후
비 오는 밤에 고요한 마음으로 창밖을 본다	비 오는 밤길 가로등 불빛 아래 빈 우산 하나

수정 포인트

“고요한 마음”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비 오는 밤길과 빈 우산 하나를 통해 정서를 남겼습니다.

수정 전	수정 후

그리운 친구 첫눈을 바라보며 눈물이 난다	첫 눈 내린 길 둘이 남긴 발자국 사라진 하나
------------------------------	---------------------------------

수정 포인트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고, 발자국의 차이로 그리움의 장면을 만듭니다.

18 장. 퇴고 체크리스트

확인	점검 항목	메모
☐	5·7·5 형식에 맞는가?	
☐	계절말이 들어 있는가?	
☐	중심 장면이 하나로 선명한가?	
☐	감정어를 너무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는가?	
☐	독자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가?	
☐	오감이 구체적인 사물이나 움직임으로 표현되었는가?	
☐	비유가 지나치게 많지 않은가?	
☐	마지막 행이 설명이 아니라 여운을 남기는가?	
☐	작가의 해석보다 사물 자체가 앞에 놓였는가?	
☐	읽고 난 뒤 하나의 이미지가 남는가?	

19 장. 연습 문제와 워크시트**연습 1. 오늘의 계절말 찾기**

오늘 하루 동안 본 것 중 계절을 느끼게 하는 말을 다섯 개 적어보십시오. 예: 양산, 참외, 매미, 접시꽃, 장마

연습 2. 감정어를 장면으로 바꾸기

외롭다, 기쁘다, 그립다, 쓸쓸하다, 설렌다 중 하나를 골라 감정어를 쓰지 않고 장면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연습 3. 중심 장면 만들기

감나무, 흰 나비, 빈 의자, 첫눈, 장독대, 고추잠자리 중 하나만 중심으로 삼아 5·7·5 를 만들어 보십시오.

연습 4. 마지막 행 명사로 끝내기

마지막 행을 명사구로 끝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마지막에 사물을 남기면 독자가 그 장면을 더 오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계절	
계절말	
중심 사물	
주변 단서	
작은 움직임	
초고 5·7·5	

20 장. 계절말 미니 목록

아래 목록은 초보자가 창작을 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계절말은 고정된 장식어가 아니라 실제 생활과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시간의 단서입니다. 지역성과 생활문화에 따라 새로운 계절말을 계속 발굴할 수 있습니다.

계절	계절말 예시
봄	봄비, 냉이꽃, 개구리, 벚꽃, 진달래, 앵초꽃, 보리싹, 봄물
여름	장마, 매미, 참외, 복날, 양산, 접시꽃, 반딧불이, 창포꽃
가을	단풍, 감나무, 국화, 억새, 귀뚜라미, 추석, 햇밤, 낫달
겨울	첫눈, 입김, 군고구마, 김장, 메주, 동지, 서리, 얼음

맺음말. 말이 끝나는 자리에서 감각이 시작됩니다

한국하이쿠의 힘은 말을 잘하는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물을 제대로 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좋은 하이쿠는 특별한 상상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물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꽃 한 송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꽃술 하나를 바라보는 마음, 나무 한 그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잎새 사이의 바람을 느끼는 마음, 골목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젖은 발자국 하나를 남기는 마음이 한국하이쿠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을 더 자세히 보고, 더 천천히 바라보고, 더 깊이 느끼는 것. 그것이 한국하이쿠 창작의 기본 정신입니다. 한국하이쿠는 짧은 형식 안에서 계절과 사물과 인간의 마음이 만나는 문학입니다. 짧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 아니라, 짧기 때문에 오래 남는 문학입니다.

참고문헌

- 한국하이쿠연맹, 「한국하이쿠창작방법」, 일부배포용 자료, 2026. 본 매뉴얼의 기본 구성인 “한국하이쿠란 무엇인가”, “5·7·5 형식”, “계절말”, “찰나적인 순간 포착”의 초보자 안내 체계를 참고함.
- Encyclopaedia Britannica, “Haiku.” 하이쿠의 17 음, 5·7·5 형식과 17 세기 일본 문학 속 성립 배경 참고.
- Encyclopaedia Britannica, “Bashō.” 마쓰오 바쇼(1644-1694)의 생애와 하이쿠 형식의 예술적 정립에 관한 배경 참고.
- T. S. Eliot, “Hamlet and His Problems,” The Sacred Wood: Essays on Poetry and Criticism, 1920. 객관적 상관물 개념 참고.
- Poetry Foundation, “Objective Correlative.” 감정을 사물·상황·사건의 배열로 환기하는 방식의 현대적 해설 참고.
- Encyclopaedia Britannica, “Delay of gratification.” 지연된 만족 개념의 일반적 정의 참고.
- Walter Mischel, The Marshmallow Test: Mastering Self-Control, Little, Brown and Company, 2014. 지연된 만족과 자기조절 논의 참고.
- Victor Turner,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Aldine, 1969. 리미널리티, 곧 문턱성 개념 참고.
- 服部土芳, 『三冊子』, 1702. 바쇼 하이카이론에서 전승되는 “소나무에게서 배우라”는 취지의 대상 관찰론 참고.
- 김수성, 「한국하이쿠와 관찰의 힘」, 「한국하이쿠 창작은 객관적 관찰이 작품을 살리는 방식이다」, 「비유적 전환과 감각의 전화로 읽는 한국하이쿠」, 「두 개의 시선이 작품을 흐릴 때」, 원고 자료.
- 안수현, 「한국하이쿠와 지연된 만족 - 기다림 속에서 완성되는 감각의 언어」, 원고 자료.

강좌·배포용 안내

이 자료는 한국하이쿠 창작 교육과 회원 강좌, 입문자 안내를 위한 매뉴얼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작품 예시는 교육 목적에 맞추어 새로 구성한 예시이며, 실제 투고나 공모전 제출 전에는 각 행의 글자 수, 계절말의 적절성, 표현의 객관성, 작품의 독창성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하이쿠연맹 문의: khf@koreahaiku.org / 홈페이지: www.koreahaiku.org

편집및작성 | 김수성 (Kim Suseong)